토스~ 스파이크로 찾는 '삶의 재미'

17년 역사의 광주배구클럽

30대~50대 아줌마·아저씨들이 만든 아마추어 클럽
매주 화·목요일 밤 학운초등학교 체육관서 팀워 다져
전국 클럽팀과 교류전 … 최강 전력 그날까지 '팡팡쇼'

지난 5일 광주시 동구 운림동 학운초등학교 체육관은 저녁 8시가 넘어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30대, 40대, 50대의 아저씨·아줌마들이 내뿜은 뜨거운 열기로 후끈 달아오르고 있었다.

이들 주인공은 배구가 좋아 모인 광주배구클럽회원들.

호! 하면 하얀 입김이 서릴 정도의 쌀쌀한 날씨는 가벼운 러닝과 수비연습만으로 저만치 달아나 버린다. 회원들의 빨간색 상의는 채 20여분이 지나지 않아 땀에 젖어 체온으로 모락모락 연기 피어 오른다.

몸 풀기가 끝나자 토스와 스파이크 훈련이 이어진다. 김병석 코치에게 공을 건넨 후 김 코치의 토스를 받아 스파이크를 하는 연습에 모두의 눈빛이 번뜩인다. 회원들이 가장 좋아 하는 훈련메뉴이기도 하다. 시원스레 코트에 스파이크를 내리 꽂다 보면 스트레스가 훌훌 날아가기 때문이다.

"영태씨 좋았어! 역시 주 공격수 다운 스파이크야. 오늘 컨디션 좋은데"임명근 경기이사의 칭찬이 이어지고 선수들의 플레이가 열기를 더해간다.

광주배구클럽은 지난 1991년 회원 10명으로 출발, 1999년 유창덕 고문을 초대회장으로 정식 창단식을 갖고 17년을 한 해도 쉬지 않고 달려온 광주의 대표적 배구 클럽이다.

현재는 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30대~50대까지 배구에는 전혀 문외한 이었던 아저씨·아줌마들이 모여 결성한 순수 아마추어 배구클럽이다.

하지만 아저씨·아줌마들이 모여 만든 아마추어 배구클럽이기 때문에 실력이 엉성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 큰 오산이다.

장년부는 광주에서 랭킹 5위안에 꼽히고, 청년부는 3위, 여성부는 당당히 톱랭킹에 올라 있는 최강의 전력을 자랑하는 클럽이다.

오죽하면 각종 대회를 휩쓸다 보니 심판들이 다른 클럽에게 은근히 어드벤티지룰을 적용하기 까지 할 정도다.

여자부는 누구도 넘 볼수 없는 최강의 전력을 자랑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양인심(48)세터 가 자리잡고 있다. 양 세터는 전국의 배구클럽 회원들이 알아줄 정도로 독보적인 실력을 자랑하고 있어 광주배구클럽의 '보배'다. 특히 양 씨는 남편 윤태종씨와 함께 클럽활동을 하며 부부애를 과시하고 있어 회원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이에 뒤질세라 지난해 회장을 지냈던 임준재·김추원 부부도 정기전이 열리는 화요일과 목요일을 손꼽아 기다리는 배구 매니아로 회원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

이외에 장년부 홍선주· 청년부 오준영· 송재호씨등 각 부의 세터들은 모두 비범한 실력으로 타 팀에서는 경계 대상 1호들이다. 청년부 변영태, 지행주, 여자부 김추원씨등은 시원하고 파괴력 넘치는 오픈공격으로 상대팀을 침몰시키는 '폭격기'이자 '저격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이 막강 실력을 갖춘데는 선수출신의 임명근 경기이사와 김병석 코치의 헌신적인 노력과 회원들의 배구에 대한 순수한 열정이 보태져 이뤄졌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이들은 어김없이 학운초등학교 체육관을 찾아 밤8시부터 10시30분까지 회원들과 함께 땀을 흘린다. 대회가 있을 때면 하루를 더 연습에 할애 할 정도로 열성이 대단하다.

제3대 회장을 지낸 기옥서(54·영암여중 교감)씨는 현재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영암배구협회회장을 맡는등 배구 마니아로 "배구 없는 인생은 생각할 수 없다"고 할 정도다.

재무팀장 김복심(여·45)씨는 배구공을 만져본 적도 없는 배구엔 문외한이었지만 7년의 캐리어를 쌓으면서 이제 남자회원들과 함께 스파이크를 때릴 정도의 실력을 갖췄다.

배드민턴과 등산 등 만능스포츠맨이자 초대회장을 지낸 유창덕씨는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한 번도 모임에 빠지지 않는 열정으로 회원들의 정신적 지주가 되고 있다.

광주배구클럽은 이처럼 회원들간의 화합과 우의를 다지는데 주력하고 있지만 전주 배사모, 대전 늘푸른, 정읍 배구클럽과 교류전을 통해 정보를 나누고 회원들의 교류의 폭을 넓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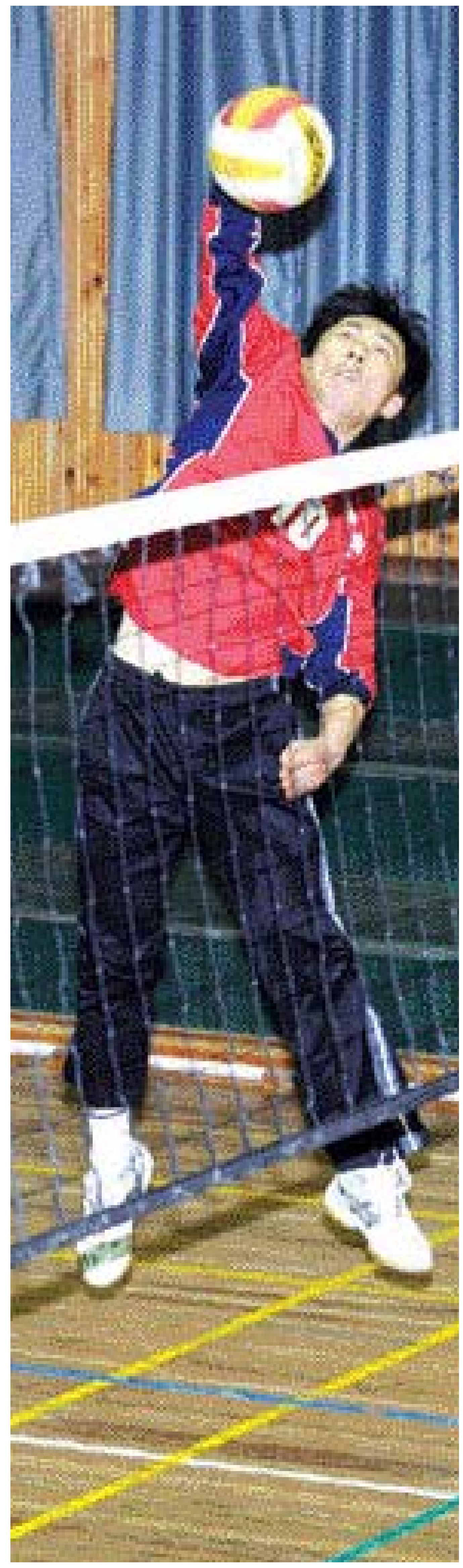
여기에 광주배구클럽이 주관, 올해로 7회째를 맞는 학운기 생활체육동호인 배구대회는 광주지역 배구클럽 회원들의 교류와 실력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제7회 대회는 오는 29일 전남대학교 체육관에서 성대하게 치러질 예정이다.

홍성주 회장은 "광주에만 머무르지 않고 전국의 더 많은 클럽과 교류전을 통해 인간관계를 넓히고, 서로 정을 나눌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17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광주배구클럽회원들이 오는 29일 열릴 학운기 대회에서 선전을 다짐하는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메가박스
구.런던약국사거리 ♡예매1544-0600

M관	추격자-디지털(18세) 최고급관
2관	밴티지포인트(15세)
3관	마이뉴파트너(15세)
4관	집결호(12세)
5관	바보(12세)
6관	추격자(18세)/점퍼(15세)
7관	마이 블루베리 나이츠(12세)
9관	27번의 결혼리허설(15세)

광주점 무료팝콘 행사가 종료됐습니다.
• 이프유 주차장 이용시 2시간 30분 무료
(단, 영화 관람고객에 한함): 2시간 30분 초과시 정상요금 부과

— 온 가족의 편안한 문화공간 —
엔터 시네마
충장로 5가 (전화예약) 228-2700

1관	마이뉴파트너(15세)
2관	람보4(18세)
3관	바보(12세)
4관	밴티지포인트(15세)
5관	27번의 결혼리허설(15세)
6관	주노(12세)/ 점퍼(15세)
7관	추격자(18세)

www.entercinema.co.kr
* 넓고 편안 옥내·옥외 주차장 300대 *
• 온 가족의 편안한 문화공간 •

황토사랑 영화사랑 • 예매:www.joycbc.com/ 1588-7941
콜롬버스 시네마 상무점 하남점
상무점(상무병원과 이마트 사이) 하남점(무역회관뒷편)

1관	밴티지포인트(15세)
2관	쿵푸덩크(15세)/워(18세)
3관	점퍼(15세)/추격자(18세)
4관	추격자(18세)
5관	마이 블루베리 나이츠(12세)
6관	바보(12세)
7관	집결호(12세)
8관	사랑보다 황금(12세)/람보4(18세)
9관	27번의 결혼리허설(15세)
10관	마이뉴 파트너(15세)

* 호남 최대 주차장 ※매일심야 상영합니다 1588-7941
콜롬버스 하남점(10개관) 절찬리 상영중 상담원연결 방법 →(1번 or 2번)→0번

색깔있는 영화산책 • www.cinus.co.kr/ 1544-0070
씨너스 전대
북구보건소 건너편 ☎ 511-1000

1관	27번의 결혼리허설(15세)
2관	밴티지포인트(15세)
3관	마이뉴파트너(15세)
4관	집결호(12세)
5관	점퍼(15세)/바보(12세)
6관	마이 블루베리 나이츠(12세)
7관	추격자(18세)

* 매일심야 상영합니다 *
• 무료주차 3시간
• 이동통신사 할인혜택
• 씨너스녹차 사우나(오전5시~새벽1시)
ARS 전화예매 1544-0070

즐거움이 가득 • www.mc12.co.kr/ 1588-9101
무등극장
충장로 1가 ☎ 232-9106

1관	마이 블루베리 나이츠(12세)
2관	집결호(12세)
3관	바보(12세)
4관	밴티지 포인트(15세)
5관	추격자(18세)
6관	마이뉴파트너(15세)
7관	사랑보다 황금(12세)/점퍼(15세)
8관	쿵푸덩크(15세)/람보4(18세)
9관	27번의 결혼리허설(15세)

* 리버사이드호텔 무등주차장(구 수협) 3시간 무료주차
• 멀티플렉스 회원만을 위한 전용창구 마련
• 전화예약 가능
• 주말에도 포인트 사용 가능
인터넷 예매 문의 1588-9101

새로운 기쁨 • www.primuscinema.com/www.jellcinema.co.kr •
제일 시네마
충장로 3가 ♡ARS 전화예매 227-1960♡

1관	추격자(18세)
2관	마이 블루베리 나이츠(12세)
3관	바보(12세)
4관	마이뉴파트너(15세)
5관	27번의 결혼리허설(15세)
6관	람보4(18세)/쿵푸덩크(15세)

* 무료주차 3시간
(광주 세무소 옆 호남타워주차장) 단, 입장권 구매 고객에 한함
ARS 전화예매 문의 227-1960